

Merck, 외국기업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한국Merck의 대표 이사이자 사장인 안드레아스 크루제 박사는 11월1일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외국기업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관하는 <2007 외국기업의 날(Foreign Company Day 2007)>에서 외국인 투자 유공자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외국기업의 날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고를 치하하고 대한투자유치를 독려하기 위해 2001년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2007년에는 Merck Advanced Technologies를 비롯해, 한국로버트보쉬 기전, 에어프로덕츠코리아, Rhodia Polyamide 등이 수상했다.

Merck는 1989년 한국에 법인 설립 후 약 20여년 동안 활발한 비즈니스 활동을 펼치면서 국내 최초로 액정 생산 및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해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으며, 액정의 재활용 등 환경친화 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 해외 교환근무와 교육 증대 및 오픈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비롯해, 국내 연구인력 양성 및 독일 기술의 이전 등 국내 경제발전과 올바른 기업문화 형성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드레아스 크루제 박사는 “열정적이고 근면한 한국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며 “한국Merck는 가장 오래된 화학 및 의약회사로서 분기가 아닌 세대를 생각하며, 책임감 있는 기업시민으로서 고객과 직원들의 가치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Merck는 최근 비즈니스 부서의 전면 개편하고 스위스 생명과학기업 Serono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7/11/01>